

덴포도(나라 시대 국보)

동원에 있는 이 강당은 원래 다치바나노 미치요[쇼무 천황의 비인 고묘 황후(701~760년)의 모친]의 손녀인 다치바나노 고나카치가 거주하던 곳으로, 후에 호류지 절에 기증되었습니다. 위를 향해 활처럼 흰 두꺼운 들보(홍량)와 개구리(가에루)가 다리(마타)를 벌린 모양의 부재(가에루마타)가 지탱하는 견고한 구조는 지금까지 수많은 건축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. 나라 시대의 주택 건축물 중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자료로서 일본 건축 역사에서 중요한 건물로 여겨집니다.

사당 내부에는 3쌍의 아미타삼존상과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상 등 나라 시대(710~794년)와 헤이안 시대(794~1185년)에 제작된 약 20구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